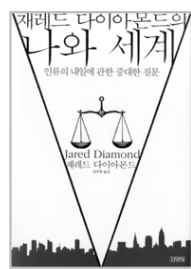


기후변화 등 인류의 위기 해결할 시간은 50년 뿐

나와 세계

재레드 다이아몬드 지음



재레드 다이아몬드는 생리학자로 출발해 50여년 간 조류학, 진화생물학, 생물지리학, 문화인류학, 역사학 등 학문의 영역을 넓혀가며

인류의 문명사를 탐구해온 세계적인 문화인류학자이자 문명연구가이다. 인류역사의 탄생과 진화를 분석한 '총, 군, 쇠'를 비롯해 문명의 위기와 종말을 다룬 '문명의 붕괴', 전통과 현대의 진정한 화해와 공존을 모색하는 '어제까지의 세계'가 그의 대표작이다.

그는 최근 펴낸 '나와 세계'에서 전작의 맥을 잇는 인류의 내일에 대해 중대한 질문을 던진다. 이 책은 저자가 이탈리아 로마 루이스대 교수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7번의 강연을 기초로 꾸며졌다.

저자는 인류가 직면한 '기후변화' 등 세계적인 문제를 다루기 전에 '왜 어떤 국가는 부유하고, 어떤 국가는 가난한가?'에 대해 지리적 요인과 제도적 요인으로 나눠 설명한다.

온대지역에 위치한 국가와 열대지역 국가간에는 상당한 국부(國富) 차이가 난다. 네덜란드의 평균 소득은 잠비아 인보다 100배 높다. 왜?

저자는 온대국가에 비해 열대국가가 가난한데는 '낮은 농업생산성'과 '열악



세계적 석학 재레드 다이아몬드는 인류의 '내일'을 위해 기후변화, 불평등, 자연자원의 남용 등 세가지 중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한다. 극심한 가뭄으로 갈라진 농토. <광주일보 자료사진>

한 공중보건' 때문이라고 말한다. 육지에 둘러싸인 입지조건도 가난을 부채질한다. 풍부한 천연자원은 오히려 분리독립운동과 부패를 초래하기 십상이다. 또한 법치와 정부의 효율성 등 '좋은 제도'(Good institution)도 국가의 빈부를 결정하는 요인이다.

저자의 높은 주제의식은 술술 읽히는 문체의 뒷받침을 받아 설득력있게 다가온다. 중국 정화제독의 '보물함대'와 같은 풍부한 사례를 들어 독자들에게 들려주기 때문이다. 그는 단순한 역사와 과학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옛것을 얘기하며 현재의 잘못된 현상을 설명한다. 저자는 온대국가에 비해 열대국가가 가난한데는 '낮은 농업생산성'과 '열악

화되는 사회경제적인 불평등 현상에서 저자는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읽는다. 영국 물리학자 스티브 호킹은 "지구 밖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시간은 단지 1000년 뿐이다. 다른 행성을 찾아 떠나야 한다"고 했지만, 그는 "우리에겐 고작해야 50년 뿐이다. 이 별을 망쳐놓고 다른 행성을 찾아 나서는 것은 답이 아니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인류가 직면한 위기를 개인적인 차원과 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도 제시한다. 그는 전세계가 직면한 문제로서 ▲지구의 기후변화 ▲국가간·개인간 불평등 정치적 타협의 반복되는 결렬과 점점 심

자원(어류, 숲, 토양, 맑은 물)의 관리를 들고, 각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 고민한다. 그는 가까운 미래에 인류에게 영향을 미칠 세가지 요인으로 ▲부(富)의 불평등 ▲자원의 남용 ▲국가간의 핵전쟁 가능성이나 테러리스트의 핵공격 가능성을 꼽는다. 책 말미에는 저자에게 묻고 답을 듣는 Q&A가 실려 있다. 그는 인류의 미래를 어떻게 볼까? 저자의 대답은 이렇다. "인류에게 장미빛 미래가 가능하냐고요? 가능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보다 나은 선택을 한다면 말입니다." <김영사·1만3000원>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날개=일본 문단을 대표하는 여성 작가로 떠오른 무라야마 유카의 또 하나의 대표작. 뉴욕에서 루트 66, 애리조나까지 광활하게 펼쳐진 아메리카 대륙을 배경으로 아버지의 자살, 어머니의 학대, 학교에서의 따돌림 등 자신을 옥죄고 있던 온갖 굴레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아가는, 등장인물들의 지난한 여정을 담고 있다. 저자는 작품을 통해 아동 학대, 인종 차별, 총기 사고, 사이버 종교 등 현대의 다양한 고질적 사회문제도 함께 다루고 있다. <예문사·1만4000원>

▲한국사 속의 한국사2=역사학계의 중진 고석규, 고영진 교수의 역사서. 1권 '선사에서 고려까지'에 이은 2권에는 '조선 왕조 500년'의 파란만장한 역사, 다양한 쟁점들에 대한 두 저자의 논평이 오롯이 담겨 있다. 저자들은 식민지, 해방 전후, 6·25 전쟁, 군사독재, 민주화와 산업화의 갈등 등 수많은 사연들을 겪으면서 정치사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일이 쉽지 않았던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토로한다. <느낌이 있는 책·1만8500원>

▲일러스트 철학사전=출퇴근 시간이나 자투리 시간에 읽을 수 있도록 쉽게 풀이된 간편 인문학. 역지로 외우지 않아도 3000 년에 이르는 거대한 서양철학사를 600여 컷의 일러스트로 배울 수 있는 인문 교양서다. 신의 존재에서부터 국가, 정의, 윤리, 행복, 자유 등 인생의 본질을 아우르는 철학자들의 성찰과 사유 경로를 귀여운 일러스트와 대사로 표현해 어려운 철학 개념과 사상을 한눈에 보고 단숨에 읽을 수 있게 풀이했다. <21세기북스·1만7000원>



▲위스키의 지구사='위스키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이면서 단순한 질문으로 시작해 위스키의 정의와 종류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국내에서 최초로 위스키의 기원과 역사를 소개한다. 책에서는 위스키를 단순한 술이 아니라 정치적이고 경제적으로 문화적인 현상으로 바라보며, 상품으로서의 위스키를 넘어 위스키의 사회사적 의미를 부각시켜 위스키를 둘러싼 이야기를 들려준다. <휴머니스트·1만6000원>

▲자유를 위한 변명=27세의 늦은 나이로 뉴욕 무용계에 입문, 33세에 인도로 떠나 영적 스승 오소 라즈니쉬의 첫 한국인 제자로 들어가 구도의 춤을 추구해 20세기 한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예술가로 자리매김한 아방가르드 무용가 홍성자의 자전적인 이야기가 담긴 '자유를 위한 변명' 개정판. 하고 싶은 것들과 해야만 하는 것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며 진정한 자유를 찾아가는 한 인간의 인생 역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판미동·1만3800원>

하루키의 작가론·문학론·인생론 ... 35년 작가생활 오롯이 담겨

직업으로서의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 지음

'하루키 월드'를 사랑하는 이들이 소장하고픈 책이 나왔다. 소설 쓰기를 꿈꾸는 이들도 흥미로워할 책이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육성으로 직접 듣는 자전적 에세이 '직업으로서의 소설가'다.

서른 살을 앞둔 1978년 즈음, 하루키는 도쿄 신주쿠 친구 구장에서 열린 야쿠르트 스왈로스와의 히로시마 개막전을 보러갔다. 무명 선수였던 야쿠르트 1번



타자 데이브 힐턴이 2루타를 쳐내는 모습을 본 그는 아무런 맥락과 근거도 없이 문득 '그래, 나도 소설을 쓸 수 있을 지 모른다'라고 생각한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원고지와 만년필을 구입했고, 운영하던 재즈 카페 일이 끝나면 주방에 앉아 소설을 썼다. '군조' 신인 문학상을 수상한 등단작 '바람을 들어라'다.

'직업으로서의 소설가'는 '노르웨이의 숲', '해변의 카프카', '1Q84' 등 술한 히트작을 펴낸 하루키의 35년 작가 생활이 오롯이 담겨 있는 책이다. 소설을 쓰는 것에 대해, 소설가로서 소설을 써야 하는 상황에 대해 정리하고픈 마음에 수년간 써내려간 글을 묶은 이번 책은 그가 풀어놓는 작가론이자, 문학론, 인생론이기도 하다. 하루키는 '소설가는 포용적인 인종인가', '문학상에 대하여', '오리지널리티에 대하여', '한없이 개인적이고 피지컬한 업(業)', '누구를 위해 쓸 것인가' 등

12개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준다. 상대방에게 조곤조곤 이야기를 들려주듯 경어체로 써내려간 글은 쉽게 읽히며 그의 내면까지도 들여다 볼 수 있어 흥미롭다. 일본에서는 판매 방식으로도 화제를 모은 책이다. 초판 10만부 중 9만부를 최대 오프라인 서점 기노쿠니야에서 매입해 일부는 자사 매장에서 판매하고 나머지는 다른 서점에 공급하는 방식을 택해 사람들이 인터넷 서점보다는 오프라인 서점을 찾도록 했다. 인터넷 서점에서의 대량구매였을 뿐 아니라, 출판사가 중개 업체를 통해 전국 서점에 신간을 배분하는 출판 유통 시스템 개혁을 위한 시도였다고 한다. <현대문학·1만4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어린이 책

▲마인드 스쿨 : 용돈이 더 필요해! = 초등학생이 고민과 문제를 함께 나누고, 스스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성 만화. 경제관념이 부족한 용돈을 함부로 쓰다 위기에 처한 주인공이 절약을 통해 이를 극복하는 이야기다. 용돈을 펴 펴 써다 벌어지는 문제와 올바른 경제관념이 무엇인지, 용돈을 어떻게 슬기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 등을 전달한다. <고릴라북스·9500원>

▲마음을 담은 그릇 = 소설가 아베 정찬주와 일러스트레이터 딸 정윤경의 손길에서 탄생한 특별한 그림책. 서정적인 글과 섬세하고 세련된 그림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소나무 스님의 순수한 품성과 동자승의 티 없는 마음, 고즈넉한 산사 풍경이 편안하고 잔잔하게 마음속으로 스며든다. <어린이 작가정신·1만1000원> ▲양성평등, 나부터 실천해요 = 가정과 학교, 사회에 만연한 성 역할 고정 관념을



살피고, 이에 반해 양성 평등한 생각과 행동을 적극적으로 표하는 방법을 이야기한다. 책에서는 솔이와 솔이 가족이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마주치는 성차별적인 문제들을 양성 평등한 생각과 행동으로 고쳐 나간다. <풀빛·1만1500원> ▲나는 자라요 = 볼로냐 라가치 상 수상 작가 김희경의 그림책. 아이들이 하루하루 겪는 사소한 순간들을 보여 주며 시간과 성장의 의미에 대해 일깨우는 철학 그림책이다. 색종이를 오려 붙이고, 친구와 헤어지며 인사하고, 공원을 산책하는 등 특별한 것 없는 짧은 순간들을 연속적으로 펼쳐지며 그런 사소한 순간들에도 아이들은 자라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창비·1만2000원>

모텔 회사 사정상 급매 합니다

-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지리산 온천지구 내 송원리조트 바로 앞
- 대지 573평, 건물 719평, 지하 1층 지상 4층, 객실 58개
- 1층 - 식당 / 세미나실 / 객실, 2~4층 - 객실
- 주위에 매매물건 없음
- 관광특구로 관광자금 유치 가능
- 게스트하우스, 수련원, 연수원 등등 적합
- 시세 / 감정가 - 15억
- 용 6억3천만원 있음, 법인체 인수 가능
- 매매 - 협의
- 리모델링 공사비 4억 별도
- 리모델링 후 연 4억원 순수익 가능
- 주인직매 H. 010-3605-5000

여수, 대지매매

- 전남 여주시 서교동 668-7, 8번지 서교동 로타리 우리은행 바로 옆
- 대지 260평 (120평 140평 분할 가능)
- 일반 상업지역 / 6차선 도로 접 / 현, 주차장
- 시세 / 감정가 - 23억원
- 용 12억 5천만원 있음 / 법인체 인수 가능
- 매매 - 협의
- 병원 / 사무 / 무인텔 / 상가 / 대형마트 등등 적합
- 1층 조립식 건축 후 상가 임대료 1,200만원 예상
- 주인직매 H. 010-8829-6876

숙박 (무인텔 / 콘도) 동업 / 투자 / 인수 하실분!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748번지 도곡온천지구 내 숙박시설
- 대지 2980평 건물 1055평 객실 52개
- 시세 / 감정가 - 60억
- 동업 / 투자 / 매매 - 협의
- 경매로 11억 2500만원 낙찰
- 용 10억원 있음, 법인체 인수 가능
- 현재 가장임차인 / 허위유치권 명도소송 진행중
- 명도 후 50억원 이상 매매 가능
- 소유자 H. 010-3605-5000

오천경매

- ▶ 비법 배우면서 투자하실분!
- ▶ 특수 물건과 NPL만 전문취급
- ▶ 교육비 1,200만원
- ▶ 예약 상담 필수
- 대표 최선규 H. 010-3605-5000